

# 신학교 인준과 국제 협력<sup>1)</sup>

-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설립한 신학교와 아태아 사역을 중심으로 -

장완익<sup>2)</sup> ([pouen1020@gmail.com](mailto:pouen1020@gmail.com))

## 1. 들어가는 말

2018년 1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전 세계 170개국으로 파송한 선교사는 27,436명<sup>3)</sup>이며,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은 교회개척과 지도자양성 사역이다. 그중 지도자양성 사역은 제자훈련, 성경학교/신학교 사역, 목회자 훈련, 현지인 선교사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성경학교를 포함한 신학교 사역은 이러한 지도자양성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이다.

본 소고에서는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sup>4)</sup>에 설립하였거나 사역 중인 신학교의 현황, 역사, 교육 과정과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본 후, 아태아<sup>5)</sup>를 통한 신학교 인준과 국제 협력의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2.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설립한 신학교

### 2-1. 현황과 역사

전술했듯이, 한인 선교사는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교회개척과 지도자양성 사역 분야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의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신학교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가졌던 여러 선교대회<sup>6)</sup> 참석자의 프로필과 자료집을 종합하여 볼 때,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는 수백 개로 파악할 수 있다<sup>7)</sup>.

- 1) 본 소고는 아태아대학원 제4호 저널(발행일 2018년 1월 18일)과 KWMF 2018 중앙위원회 총회 및 제 8차 지도력개발회의 자료집(발행일 2018년 2월 26일)에 실린 글을, 필자가 추가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2) 아태아지도자개발연합(ATEA) 사무총장 및 인준위원장, 아태아대학원(AIIS) 부총장(행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 조교수,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사무차장,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CPTI) 운영이사장,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ICCHI) 설립자,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메콩개발지구 지역대표, 베트남 주재(1993년 11월~2006년 6월) 및 캄보디아 주재(2006년 6월~현재) 선교사, 전북대학교(B.B.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qu.) 및 선교대학원(Th.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ICS), Georgia Central University(Ph.D./ICS(Can)).
- 3) KWMA 홈페이지([www.kwma.org](http://www.kwma.org)).
- 4) 선교지에 대한 개념은 계속 변화되고 있으나, 본 소고에서는 '파송 받은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 5) 아태아지도자개발연합(ATEA: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의 약칭으로, 2004년 6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신학교 사역자 24명의 동의로 발족되었으며, 현재 40여 개의 단체와 학교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6) 필자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의 개신 교단과 선교단체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와 북미주에 본부를 두고, 북미주 한인 교회와 선교단체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를 한국 선교의 3대 기구로 본다.

한인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운영하는 신학교의 현황은 한인 선교사가 주재하는 국가와 대륙에 따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등의 특정 지역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 신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신학교라는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세분하면 성경학교(Bible School),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 신학원(Theological Institute), 성경신학원(Biblical Seminary),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 or University)의 기독교학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운영 형태로 볼 때에는 한인 선교사 개인 중심으로 운영, 한인 선교사가 속한 교단이나 선교단체 중심으로 운영,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의 교단이나 교파와 연합하여 운영 그리고 특정 교단이나 교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 특정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하여 운영하는 형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설립한 신학교는 1983년 6월, 김활영, 김유식, 박기호 선교사 등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설립한 장로회신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TS)가 최초이다. 그 이후 전 세계 각 선교지에서 각 교단과 교파를 따라 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필자가 파악한 신학 교육과 훈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sup>8)</sup>.

순	신학교 명	설립 시기	소재 국가	설립자, 비고
1	장로회신학교	1983 06	필리핀	김활영 외 장로교 선교사/EPM
2	살렘신학대학	1985 08	인도네시아	김종국(고신)
3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	1985	파라과이	고 김재창, 정금태(GP/합동)
4	아시아신학대학/대학원	1988 01	인도	정윤진(합동), ATA 인준
5	태국복음주의신학교	1989 06	태국	윤수길(GP), 2007년 ARB로 개명
6	뽀띠아낙신학교	1989 07	인도네시아	서춘화(합동)/GKII
7	누산따라임마누엘신학교	1991 08	인도네시아	고 서만수(합동)
8	타슈켄트기독교연합신학교	1991 11	우즈베크스탄	신윤섭(합동)
9	우즈베키독교신학교	1991	우즈베크스탄	이성운, 초교파
10	앙헬레스장로회신학대학	1992 06	필리핀	이교성(통합), ATEA 인준
11	은혜와진리신학교	1992	우크라이나	최영빈, 오순절 배경 초교파
12	상트페테르부르크가나안신학교	1992	러시아	김재광(토론토영락교회)
13	글로벌성경대학교	1993	X국	김다니엘(성결), ATEA 인준
14	우간다개혁신학교	1994 01	우간다	MAN선교회

7) 주안대학원대학교 윤순재 총장은, 한인 선교사에 의해 전 세계에 설립된 학교는 800여 개인데, 400여 개는 일반학교 그리고 400여 개는 신학교로 파악하고 있었다(2018년 3월 3일).

8) 태국 한인선교 60년사, 한국교회 필리핀선교 40년사,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35년사, 프놈펜포럼 2016년 연구자료집,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창간호와 제2호, 아태아대학원 저널 제3호와 제4호, 아태아 인준위원회 브러셔, 김종국/임종표/최하영/오삼열/정현명/송상천 선교사의 메시지 등을 참조하였다.

15	선한목자훈련원	1995 01	터키	김요한(합동) 포함한 이사회
16	장로회신학교	1995	우크라이나	김교역(LA은혜교회)
17	베데스다신학교	1996 02	인도네시아	한치환(기하성)
18	브라질남부신학대학	1996 02	브라질	정헌명(바울선교회), 초교파
19	YWAM시드니318	1996 03	호주	하태식, ATEA 인준
20	베트남침례신학교	1996 08	베트남	박종근(침례)
21	자카르타웨슬리신학대학	1996 09	인도네시아	어성호(감리)
22	글로리아신학교	1996 11	방글라데시	장로교와 선교단체 연합
23	나이로비국제신학대학	1997(?)	케냐	이종도(합동), 김경수(?)
24	국제연합신학원	1997 07	X국	김청죽(대신), ATEA 인준
25	캄보디아감리교신학교	1997	캄보디아	캄보디아감리교선교부
26	블라디보스톡장로교신학교	1997	러시아	송상천(백석)·장로교 선교사 13명
27	캄풍솜성경신학교	1998	캄보디아	한성호(SLBP)
28	캄보디아성결교신학교	1998	캄보디아	홍철원(기성), 2001년 교단 허가
29	가나안누산따라신학교	1998 11	인도네시아	양춘석(합동)
30	아시아선교신학교	1999 01	X국	김희락(백석), ATEA 인준
31	성서침례교신학교	1999	캄보디아	침례교 선교사, 김조동(성서침례)
32	애양목신학연구원	2000 04	러시아	이준호(기감), ATEA 인준
33	인니메단침례신학교	2000 05	인도네시아	정재교(침례)/인도네시아 침례교
34	가나안누산따라신학교	2000 07	인도네시아	양춘석(합동)
35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2000	우크라이나	남성호(합동), 침례교 배경 초교파
36	인니장로교신학대학	2001 06	인도네시아	김종국(고신)
37	태국웨슬리신학교	2002 05	태국	윤광섭(감리)
38	KL바하사신학원	2002 08	말레이시아	이은무(GP) 외, MBS 분원
39	캄보디아성결신학교	2002	캄보디아	홍철원(성결)
40	치앙라이장로교신학교	2003 01	태국	정승희(합동), KPM/WETS 인준
41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	2004 10	캄보디아	캄보디아장로교공의회(현 독노회)
42	라후신학교	2004	태국	CCT/최인봉(통합), ATEA 인준
43	저드슨신학대학·대학원	2005 01	미얀마	김균배(합동)
44	중앙아시아국제기독교대학	2005 01	키르기스스탄	방창원(합동)

45	몽골장로교신학교	2005 05	몽골	몽골장로교협의회
46	쉐마장로교신학대학	2005 08	인도네시아	김외현(합동), GKO와 동역
47	순복음신학교	2005	우크라이나	김요만(기하성)
48	벤엘신학원	2005	X국	이형로(합동), ATEA 인준
49	사랑신학교	2005 11	필리핀	김현진, ATEA 컨소시엄
50	브라질GMS신학교	2006 03	브라질	브라질GMS지부, ATEA 컨소시엄
51	베트남침례신학교	2006 08	베트남	박종근(침례)
52	개혁신학원(CRTS)	2006 10	X국	X국 GMS 선교사(중총공사)
53	태국감리교신학교	2007 05	태국	오세관(감리)/EFT, ATEA 인준
54	나침반신학교	2007 10	따지스탄	윤성환(합동)+설립위원회
55	국제신학교	2008 05	베트남	최다니엘(합동), 교회개혁훈련학교
56	사이공장로교성경신학원	2008 11	베트남	베트남장로교회
57	인니국제신학대학원	2008	인도네시아	김귀영(합동)
58	국제신학대학대학원	2008	캄보디아	고 김의환(합동), ITS 분교
59	아시아리폼드신학교	2009 04	한국	윤대진(합동), 한국 내 이주민
60	치앙마이신학대학원	2009 06	태국	TEAM선교회, ATEA 인준
61	트리티니신학대학	2009 11	태국	권오혁(합동), MBTS 분원
62	브라질마릴라신학대학	2010 02	브라질	정헌명(바울선교회), 초교파
63	국제사역신학원	2010 10	필리핀	필리핀 GMS 선교사, ATEA 인준
64	네팔코리아국제대학교	2011 05	네팔	문금임(성결), ATEA 인준
65	파이린신학교	2011 01	캄보디아	윤구행(고신), ATEA 인준
66	웨스트민스터신학교	2011	캄보디아	고 황보연준(미주합동)
67	루존신학교	2012 06	필리핀	방창원(합동), ATEA 인준
68	슬라빅복음주의신학교	2013	우크라이나	김병범(합동), ATEA 인준
69	열방신학교	2014 09	태국/라오스	남성균(합동), ATEA 인준
70	몰도바복음신학대학원	2015 03	몰도바	이태형(합동), ATEA 컨소시엄
71	라이트성경신학교	2015 07	태국	홍경환(통합)
72	에스라신학원	2015	우크라이나	정광섭(침례)
73	하베스트리더십대학원	2015 10	태국	이성상, ATEA 컨소시엄
74	미얀마선교사훈련원	2015 12	미얀마	이연원, ATEA 컨소시엄

## 2-2. 교육과정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신학교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서구 신학체계 또는 한국적인 신학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신학의 주요 분야를 1) 주경신학(또는 성경신학): 구약과 신약, 2) 조직신학, 3) 교회사, 4) 실천신학으로 보고, 이에 따른 세부 과목을 배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신학교에서는 선교신학을 별도의 분야로 보거나 오히려 선교신학을 가장 중심된 과목으로 앞세우면서, 나머지 분야의 신학 과목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함께 운영할 경우의 신학대학(학부) 과정 그리고 성경학교만을 운영할 경우에는 성경 각론과 총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일반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일부 교양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그 외 성경대학원이나 신학원에서는 예배학, 기도학, 전도학 등의 실천신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위의 몇 가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인 선교사에 의해 선교지에 설립된 신학교는 해외 또는 선교지라는 장소에 설립되었지만 대부분의 교육과정과 내용은 서구 또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영어 또는 해당 선교지의 언어일 뿐이지 실제로 선교지에 필요한 신학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편성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 2-3. 보완이 필요한 점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운영하는 수백여 개의 신학교들은 초기 정착 시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의 한계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행정적인 어려움 등을 극복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려는 한인 선교사의 헌신과 수고에 많은 열매를 응답으로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지 신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한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많은 열매와는 달리 아래의 몇 가지들은 재고하거나 시정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특별히 성경과 선교역사라는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위 교육과정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학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 지역과 종족 그리고 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연구한 후에, 신학교 설립 여부를 포함한, 어떤 형태와 어떤 규모의 신학교 설립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신학교는 이러한 선교지 자체 또는 선교지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 신학교의 형태와 규모가 결정되기보다는 신학교 사역에 앞장서는 선교사의 파송 교회와 소속 교단 또는 특정 후원자의 의지 등, 선교지 외부 상황에 따라 신학교의 형태와 규모가 결정된다.

심지어는 굳이 별도의 신학교가 필요하지 않거나 신학교 설립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도 신학교 부지구입 헌금을 하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신학생을 지원하며 그렇게 연결된 신학생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신학교 역시 중복투자, 과잉경쟁 사역의 한 분야가 되고만 것이다.

둘째, 신학(神學, Theology)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적 사고와 한국 교

회 또는 한국인 선교사의 티칭 콤플렉스(Teaching Complex)가 어우러진 신학교 우선주의 사상으로 인한 신학교 설립이다. 선교지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교회개혁과 신학교 사역이 한국인 선교사에게 가장 호응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 문화가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교육열이 높고 교육 시스템이 강화된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는 교수 사역을 매우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바람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선교지에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다. 또는 신학교는 아니어도 선교지에 가서 한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또는 선교지의 현지인 목회자를 대상으로 훈련했다는 사실을 보람으로 여기는 목회자와 교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선교지 신학교의 첫 출발이 바르지 못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학교의 미 자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자립 자체였고, 사도 바울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훈련 역시 자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대부분의 선교지 신학교들은 자립하지 못할까? 선교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 지도자를 신학교<sup>9)</sup>라는 제도에서 훈련하는 자체가 그러한 문제의 시발이었다. 신약성경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훈련은 신학교라는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고, 교회 자체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소수의 제자를 직접 양육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 제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마 5:13,14)’,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벧전 2:9)’는 말씀의 근거 위에 학문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회를 배경으로 한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크리스텐덤(Christendom)<sup>10)</sup>의 유산인 신학교는 그 발판 대신, 교회 지도자 후보생들만의 장(場)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함으로써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World)이 사역의 장소이자 배경이라는 사회성을 약화시켰다.

#### 2-4. 대안

위에서 살펴본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는 서구나 한국의 부속(附屬) 또는 연장(延長)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고유한 국가와 민족 사회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받아들일 복음은 성경 말씀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토양 즉,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모임을 갖되, 가능하면 선교지에 이미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나누면서 어떤 형태 또는 어떤 규모의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9) 신학교(Seminary: 못자리)는 1563년 트리엔트회의(The Council of Trent)에서 교구 사제 양성을 위해 설립한 형태이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때부터 수도원 대신 신학교를 공식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였다. 개신교회에서 대학을 대신하여 신학교 제도를 채택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다.

10) 그리스도교의 원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기본 원칙으로 적용, 확립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가진 국가로 그 원시적인 형태로는 유대의 신정국가(神政國家)를 들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치 형태는 로마제국을 위시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로 확산 정착되어 1,0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전성기에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형성하고, 예술과 철학, 법과 제도를 완비하여 세계 문명에 영속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미 설립된 신학교들은 서로의 교육과정과 형태를 공개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신학교가 설립된 인근 지역이나 사회에 필요한 개신교 또는 복음주의 배경의 신학기준(Standard of Theology)을 만들고, 나아가 해당 국가의 신학인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Theology Accreditation)를 구성하면서 그 나라 안에 설립된 신학교들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학은 성경을 학문적인 체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학생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체계보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울러 성경은 신학교 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충분히 습득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교인이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통독하며, 암송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본 훈련이 신학생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신학교 사역을 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평일에는 교수로 가르친 후, 주일에는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설교를 듣거나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다시 평일에는 신학교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설교와 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선교사가 평일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일에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한다면 제자들의 사역을 지도하고 격려할 기회가 없게 될 뿐 아니라, 티칭 콤플렉스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선교사는 선교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선교지에 대해 항상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의 신학교는 반드시 자립해야 한다. 경제적인 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자립하는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의 지원 규모와 예산은 줄이고, 신학생을 포함한 선교지 자국민 교회의 부담은 늘려야 한다. 교수와 학생의 비율은 낮을수록 좋으며, 교수와 학생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최소한 일 년에 여러 번 함께 여행을 하면서 교수 제자의 관계보다는 아비 자녀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각 신학교가 노력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정 국가나 지역의 신학교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3. 신학교 인준과 국제 협력

#### 3-1. 인준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설립하였거나 운영 중인 신학교는 개별적으로는 설립 목적과 비전 및 교육 목표가 분명하지만, 한인 선교사 전체적인 측면 또는 해당 국가와 지역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세계선교를 위한 전략적 연대 등을 생각할 때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바로 신학교 인준과 국제적인 협력이다.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였거나 운영 중인 전 세계 선교지의 신학교를 400여 개로 보았을 경우, 해당 국가나 국제적 기준에 따른 인준(Accreditation)을 받은 신학교는 얼마나 될까? 필자의 생각에는 불과 10% 정도 또는 그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선교지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중, 인준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을 지라도 인준에 대해 부담을 갖는 선교사가 적지 않은데, 먼저 인가와 인준의 의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가(認可, approval, authorization, permission, grant)<sup>11)</sup>

이는 신학교에 대한 행정적, 법적 또는 정치적 허가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이나 선교대학원 등을 허가하는데, 이를 '신학교 인가'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 공공단체 등을 통해 그 신학교육 단체의 설립을 공인하는 성격이다. 그러기에 개신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신학교가 행정적, 법적으로 인가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사역하는 캄보디아는 헌법에 국가 종교(국교)를 불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종교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갖춘 여러 신학교에 해당 종교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종교부장관 명의의 공식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학위 인준이 아닌, 신학교라는 교육기관 자체를 인가한다는 의미에 해당된다.

2) 인준(認准: accreditation)

이의 한국어 의미는 ① 조약이나 임명 따위를 승인하여 비준함 ② 승인하여 비준하다 등이다. 그러나 영문 의미에 따르면 동질 집단의 단체들이 외부 혹은 반대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갖는 행위이다<sup>12)</sup>.

신학교 인준 또는 학위 인준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인준의 참된 의미는 이질적인 집단이나 독립적인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질 집단으로부터 동질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각 지역별, 국가별 또는 대륙별 신학교육협의회(또는 연맹)<sup>13)</sup>과 신학교와의 관계는 주종관계 또는 수직적 명령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 그리고 상호 보완관계이어야 하며, 신학교 자체의 인준보다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학위에 대한 인준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11) 어떠한 일을 법적으로 옳다고 인정하여, 행정적으로 그 시행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 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 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인가·승인·특허·확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바,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 요건으로서 무인가(無認可)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나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출처: 위키백과/브리태니커).

12) Accreditation is a process in which certification of competency, authority, or credibility is presented. Organizations that issue credentials or certify third parties against official standards are themselves formally accredited by accreditation bodies; hence they are sometimes known as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The accreditation process ensures that their certification practices are acceptable, typically meaning that they are competent to test and certify third parties, behave ethically and employ suitable quality assurance.

13)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신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인준단체는 1980년 3월에 설립된 ICETE(International Council for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 [www.icete-edu.org](http://www.icete-edu.org))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가 참여하는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 [www.ataasia.com](http://www.ataasia.com), 한국어로는 아시아신학연맹) 역시 ICETE의 8개 대륙별 인준기관 중 하나이다.



### 3-2. 인준의 필요성

신학교 또는 그 신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왜 인준을 받아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공성의 확보이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교는 설립된 지역과 국가의 교회 지도자양성 기관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개인 사역으로는 한계가 많다. 상당수의 신학교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했지만, 일정 기간 지난 후,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선교사들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여러 과목들을 개인이 모두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재정 조달과 신학교의 진로와 방향 등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다. 특히 졸업 시, 졸업생에게 주는 학위 증서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학위 증서를 수여받은 졸업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의미에서 인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국지적인 지역(Local)의 중요성도 여전히 강조되지만,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권역이라는 지구촌(Global) 의식이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 어느 신학교에서 받은 어느 학위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그 신학교가 수여한 학위가 어느 신학교에서 인정하는지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못한다.

둘째, 신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신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다. 마치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과 타인의 시각이 다른 것과 같다. 그렇기에 제삼자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학교를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 평가를 신학교에 적용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인준 실사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인준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인준을 받은 신학교 사이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신학교 사역이라는 공통점은 전 세계 신학교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길을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준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신학교는 계속하여 대외적인 교류의 문호를 외면하고, 신학교 스스로의 평가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그 신학교의 활동에 만족하면서, 대외적인 방향이나 협력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의사가 개인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는 있지만, 비록 개인 병원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필요한 정부의 안내와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비록 개인이 설립한 신학교라 할지라도 일정 기준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다.

### 3-3. 신학교의 현실과 국제 기준 인준의 차이

문제는 국제 기준의 인준과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한인 선교사와의 현실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이다.

우선 모든 국제 기준의 인준단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이며, 인준의 기준 역시 개방된 지

역,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창의적 접근지역, 비서구권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나치게 물량적(the amount of materials, quantities) 그리고 제도 중심적인 면이 많다. 비서구권의 신학교 상황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으며, 충족한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신학교 유지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인준에 따른 하드웨어 유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이 생각보다 많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선교지에서는 서구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서구권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 사역에 상당한 저항 내지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30~4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가 부흥하였지만, 신학교 인준이라는 기준은 여전히 서구에서 개발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아 기독교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해 재고해야 할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러다보니 비서구권의 일부 신학교들이 그러한 국제적 인준 기준을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그러한 인준 기준에 따르지 못한 채, 또는 그러한 인준에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 3-4. 대안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간파한, 아시아 지역에서 성경학교와 신학교 사역을 하던 한인 선교사 20여 명은 필리핀 마닐라의 장로회신학교(PTS) 교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활영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 2004년 6월 22~24일, 필리핀 마닐라 까삐떼에서 모임을 갖고,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ATEA: Associ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이하 아태아)<sup>14)</sup>를 설립하였으며, 한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선교지 신학교 간의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2년부터는 한인 선교사가 해외에 설립하였거나 사역 중인 신학교를 직접 인준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2018년 10월 현재, 20개 인준단체와 20개 컨소시엄단체가 이 단체에 속해 있으며, 2020년에는 70개 이상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인준단체로 발돋움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태아는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전 세계 수백여 개의 신학교를 대상으로 인준 사역을 함으로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중에서, 특별히 선교지의 지도력 개발, 교회지도자 양성 그리고 자신학화를 적용하는 등의 신학적 소명을 돕고자 한다.

아울러 아태아는 국제 인준단체와의 간격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대륙별 기준을 배경으로 인준하는 ICETE에 '창의적 접근 지역과 창의적 방법 및 한인 선교사 대상의 인준'이라는 성격을 띠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시도 중이다. 그리함으로 4차원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한인 선교사의 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인준단체로서의 역할에 좀 더 성실을 기하고자 한다.

---

14) 아태아는 그 뒤로 이름을 아태아지도자개발연합(ATEA: Alli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in All-nations, [www.ateahome.org](http://www.ateahome.org))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을 법적 소재지로 하고 있다.

#### 4. 아태아를 통한 인준과 국제 협력의 사례들

전술한,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역 중인 신학교를 인준하고 국제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은, 한 편으로는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한 편으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도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아에서는 2012년, 이러한 결정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신학교와 단체를 방문하였고, 그 신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아태아 인준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인준을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몇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에 비교적 제한이 없는, 소위 열린 지역에서의 신학교 인준에 대한 사례로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총장 김재규 박사, 이하 캄장신)의 경우이다.

캄장신은 2003년 7월에 설립된 캄보디아장로교공의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로, 2004년 10월에 개교하였다. 즉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후 지금까지 한국과 미주에서 파송 받은 15개 이상의 장로교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하여 운영 중인 신학교이다.

2008년 8월, 이 학교의 총장<sup>15)</sup>으로 취임한 전호진 박사는 캄장신의 발전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인준’으로 보았으며, 아시아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아시아신학연맹)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당시 외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캄장신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ATA의 인준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 상태였으며<sup>16)</sup>, 당시 아태아 인준위원으로 섬기던 전호진 총장은 이의 충족에 최소한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서, 2013년 1월, 아태아에 인준을 신청하였다.

아태아는 캄장신으로부터 인준신청서를 접수 후, 서류 심사와 함께, 해당 학위 인준에 대한 실사를 가졌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캄장신은 아태아 인준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캄장신은 아태아에 인준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2년 8월, 캄보디아 정부(종교부)로부터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Institute)로서 ‘인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불교가 국교로 채택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학교로서의 활동을 그리고 아태아로부터 인준 받은 과정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인도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한 힌두교 국수주의가 강세이면서, 힌두교를 국교로 채택한 네팔의 경우이다<sup>17)</sup>. 수년 전, 네팔 정부(교육부)로부터 인문학부, 경영학부, 컴퓨터공학부, 기독교교육학과 등, 4개의 단과대학 설립을 허가받은 모 선교사는 2년 전, 첫 졸업식을 앞두고, 네팔 정부에 졸업생 명단을 제출하며 학위 수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네팔 정부에서는 처음 설립 시와는 달리, 인문학부, 경영학부, 컴퓨터공학부 졸업생들에게는 학위 수여를 허락하였지만, 기독교교육학과의 졸업생에게는 학위 수여 뿐 아니라 그

15) 캄장신이 개교한 2004년 10월부터 전호진 총장 취임 전인 2008년 8월까지의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라는 학교명에 따라 교장이 학교의 대표였으며, 2008년 8월부터는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면서, 학교의 대표를 총장으로 호칭하였다.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문찬식 선교사가 초대 교장으로 캄장신을 섬겼다.

16) ATA 인준 규정에 가장 부합하기 어려운 조건은 현지인 교수와 현지 재정 지원의 비율이었다. 당시 캄장신 교수의 대다수는 한국인 선교사였으며, 학교 운영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에 의존하였었다.

17) 학교명과 대표자의 이름은 보안 관계 상,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학과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힌두교 왕국에서 기독교 관련 대학 졸업생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시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만 4년을 가르친 학생들에게 아무런 학위를 수여할 수 없게 된 학교 대표는 그 학교 명목이 아닌 타 단체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보다가, 아태아를 통한 학위 인준과 학위 수여가 가능함을 알게 되었으며, 아태아에서는 인준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와 실사 등의 정해진 절차를 밟아 그 학교에서 신청한 학위를 인준하였고, 정한 기간에 정한 학위를 수여하였다.

세 번째는, 십년 이상 소그룹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성경적인 기반으로 철저히 제자훈련을 시켰으나 그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터키의 경우이다<sup>18)</sup>. 추방과 재입국을 거듭하는 중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소수의 제자를 목회자 후보생으로 양육한 훈련원의 대표는, 20여 명의 훈련생들에게 그 동안의 훈련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터키 내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느 단체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없었으며, 선뜻 이와 연관된 어떤 서류 하나도 만들 수 없었다.

훈련원의 대표는 위 네팔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다가 아태아를 알게 되었으며, 역시 정한 절차를 따라 아태아에 인준을 신청하였고, 아태아에서는 서류 심사와 실사를 거쳐, 훈련을 시작한지 10년이 훨씬 넘는 수료생들에게 수여하는 학위를 인준하였다.

아태아는 한인 선교사들이 설립하였거나 운영 중인 신학교에서 수여하는 해당 학위의 인준을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위한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학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도록 기여하고 있다.

## 5. 나가는 말: 한인 선교사, KWMA와 KWMF에 대한 제언

아태아 인준의 목적은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전 세계의 신학교, 성경학교, 신학원 및 신학대학원 등의 신학교육 기관과 목회자훈련원, 선교사훈련원 등의 훈련 기관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토착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을 개발하도록 아태아의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평가를 통해 현지에 더욱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도록 격려하는데 있다.

그 동안 서구의 신학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사역했던 한인 선교사들은, 사역하는 현장에 가장 부합하고 효율적인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인준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한인 선교사에게 주어진 은사가 충분히 개발되고, 배출되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민족은 물론, 전 세계를 배경으로 마음껏 활동하기 바라며, 이를 다음의 아태아 인준매뉴얼 서문으로 표현한다.

아시아는 복음의 출발지이자 세계 인구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선교 필드이다. 또한

---

18) 훈련원명과 대표자의 이름은 보안 관계 상,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아시아는 가장 긴 선교 역사와 함께 가장 많은 교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지도자훈련 사역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슬람권, 공산권 등에서는 이러한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경우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지도자훈련 사역은 이를 검증하고 격려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그렇다.

2004년 6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족한 아태아는 매해 신학포럼과 정기총회를 갖던 중, 이 인준 문제를 우리보다 더 권위 있는 제3의 기구에게 맡기거나 협력하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2012년부터는 아태아에 참석하거나 연관된 지도자훈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인준을 시작하였다. 아태아 인준은 지도자훈련 사역을 진행하는 지역의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지도자훈련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을 돕고자 함에 있다<sup>19)</sup>.

이제 선교지에서 신학교육 사역에 참여하는 한인 선교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그리고 한인세계선교사사회(KWMF) 등에 대해 아래의 제언을 함으로, 본 소고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에 참여하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신학교 사역은 해당 선교지의 백 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신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인준과 신학교 간의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신학교가 이미 국제적인 기준의 인준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국제 인준 기관 뿐 아니라 아태아와도 교류의 문을 열기 바라며, 아직 국제적 기준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태아 인준을 통하여 국제적인 인준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란다.

둘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사무총장 조용중)에게: 아태아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단체와 교단선교부를 대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협력기구로, 초교파적 복음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며, 한인 선교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역하는 신학교를 대상으로 인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도록 돕고자 한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안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대상의 신학교 인준과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개발을 위해 아태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셋째, 한인세계선교사사회(KWMF: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사무총장 이은용)에게: 본 소고에 수록된 상기 도표는 만 15년 동안, 아태아를 섬기는 필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이제는 한인 선교사에 의해 전 세계에 설립된 신학교 전체 현황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는 한인세계선교사사회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인세계선교사사회가 비록 선교사 간 교제 중심의 기구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신학교를 전수(全數) 조사할 경우, 이는 해당 지역과 국가는 물론, 한국 교회나 세계선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지금부터 제기되고, 한국 교회의 3대 선교 기구인 KWMA, KWMC 그리고

---

19) 아태아, p.369.

KWMF가 긴밀한 협력을 이룸으로, 2020년에 열리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시, 한인 선교사에 의해 전 세계에 설립된 신학교 현황이 발표되기 바란다.

### 참고목록 (Bibliography)

- 김낙근, <GMS 필리핀 40주년 선교대회백서>, 경기: GMS 태평양지역선교부·필리핀지역, 2018.
- 김조동 외 8인 공저, <캄보디아 선교역사>, 서울: 도서출판 침탑, 2013.
- 김활영, “선교지에서의 신학교육”,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창간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08.
- , “아시아 신학교육 네트워크의 실제”,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창간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08.
- 서만수, <가르치며 증거하며 섬기며>, 자카르타: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2008.
- CPTI, <ATEA 인준을 위한 자료집>, 프놈펜: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 2013.
- , <함께 온 열두 발자국>, 프놈펜,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 2016.
- 아태아, “아태아 인준매뉴얼”, <아태아대학원 저널 제4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8.
- 윤대진, “효과적인 이주민 사역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제안”, <GMS 맥도 이주민선교세미나>, 경기: GMS 메콩개발기구, 2018.
- 윤순재, 인터뷰, 2018년 3월 3일.
- 장완익, “선교지 신학교의 효과적인 운영과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학교연합”, <아태아대학원 저널 제3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6.
- , “ATEA의 어제와 오늘”,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 “한인 선교사의 신학교육 역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아태아대학원 저널 제4호>, 서울: 아태아대학원, 2018.
- 조동진, “선교적교회론과 지도자양성”,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주태한인선교사회, <태국선교백서>, 치앙마이: Harvest Press, 2012.
- , <태국 선교 60주년 기념 선교 포럼>, 서울: 주태한인선교사회, 2016.
- KWFMF, <2018 중앙위원회 총회 및 제8차 지도력개발회의>, 방콕: KWMF, 2018.
- 최하영, “ATEA의 국제관계와 인준을 위하여”, <아시아신학교육 저널 제2호>, 서울: 아시아신학교육협의회, 2013.
- 프놈펜포럼, <프놈펜포럼 2016년 연구자료집>, 프놈펜: 프놈펜포럼, 2016.
- 인터넷, [www.kwma.org](http://www.kwma.org), 검색일 2018년 1월 15일.